

「한국 고유생물종 도감」 최초 발간

환경부는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「한국 고유종 DB구축 사업」을 추진한 결과, 한국 고유종 2,322종을 발굴하여 최초로 「한국 고유생물종 도감」으로 발간했다.

한국 고유종 DB구축 사업은 총 3여년('02.4~'05.9)에 걸쳐 (사)한국생물다양성협회(회장: 김주필교수) 5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 고유종의 범주를 설정하고, 고유종을 발굴함.

도감은 농림부 등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므로써 고유종 보호·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.

한국 고유종(2,322종) 중에는 곤충류(1,031종)가 가장 많고, 다음으로 고등식물(515종), 갑각류(162종), 톱토기류(149종), 거미류(133종), 연체동물(92종), 담자균류(35종) 등의 순서이다.

환경부는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한국 고유종은 보호 대책이 시급한 종부터 연차적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종으로 지정·관리할 예정이며, 향후 자생생물 조사·발굴 및 한국 생물지 발간사업과 연계하여 고유종의 분류

학적 실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.

지금까지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된 생물종은 총 333종으로 식물 242종, 곤충류 53종, 어류 37종, 파충류 1종임.

아울러 환경부는 한국 고유종 및 야생동·식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물종 정보를 국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홈페이지의 별도 메뉴(한국의 야생동·식물)에 게재하여 '05. 10. 17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.

○ DB 구축 현황 : 지정현황, 사진, 형태·생태특성, 분포, 법규, 벌칙 등

○ 대상생물 : 한국 고유종,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, 먹는자처별대상야생동물, 포획금지야생동물, 유해야생동물,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, 수출·입등허가대상야생동물, 국제적멸종위기종,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 등.

「실내공기질 관리 시청각교재」 제작·배포

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및 공동주택 입주민 등이 실내공기를 관리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내공기의 중요성, 실내오염물질 발생원, 시설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법 등이 담겨진 「실내공기질 관리 시청각교재」를 제작하였다.

환경부가 이미('05.11월) 발간·배포한 「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」와 함께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,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제고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「실내공기질 관리 시청각교재」는 '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'와 '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' 2종으로 구분·제작되었으며 각각 15분, 13분 분량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.

'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'는 환기,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공통적인 관리방법과 함께

지하역사, 의료기관, 실내주차장, 대규모점포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법을 담고 있으며 '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'는 환기, 청소, 공기정화 등 일반적인 관리방법과 함께 공사기간중, 입주전후 등 입주단계별로 필요한 관리방법을 담고 있다.

또한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, 법령, 기관 등을 소개하여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「실내공기질 관리 시청각교재」는 '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' 1,000개, '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' 5,000개 등 총 6,000개(DVD)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, 환경보전협회, 한국실내환경학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동영상 파일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2006. 1.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 실내환경정보센터 (<http://iaqinfo.nier.go.kr>)에 게재하여 일반국민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. 